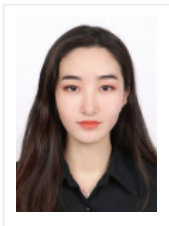


직관적인 UI를 설계하는 웹디자이너/웹퍼블리셔, 콕민서입니다.



콕민서 2002년 (21세/만 20세) | 여

✉ sxxrah.k@gmail.com

☎ 010-3822-4505

☎ -

🏠 (07781)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8길

학력사항 대학교(4년) 재학중	경력사항 신입	희망연봉 면접 후 결정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서울전체 정규직,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https://minseo-kwak.github.io/por-
---------------------	------------	-----------------	---------------------------------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재학중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22.02 ~ 현재	재학중	한양사이버대학교 (서울)	심리학	4.5 / 4.5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2.02 ~ 2022.07	교육이수내역	이젠컴퓨터아카데미화곡	웹디자인 및 스마트 UI/UX 웹퍼블리셔 양성 - 어도비 디자인 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 HTML, CSS, JavaScript, jQuery 활용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0.02	어학시험	IELTS	영어	8점/PASS
2021.08	자격증/면허증	코딩지도사 1급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최종합격
2021.08	자격증/면허증	CCNA (Cisco Certification Network Associate)	CISCO (시스코 시스템즈)	최종합격
2021.07	자격증/면허증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21.07	자격증/면허증	리눅스마스터2급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최종합격
2017.08	자격증/면허증	번역사3급 (일반번역능력인정시험)	한국번역가협회	최종합격

보유기술

--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한컴오피스한글
Powerpoint
웹디자인
Adobe XD
Adobe Photoshop
jQuery
JavaScript
CSS3
HTML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minseo-kwak.github.io/portfolio/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디서든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포부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저 자신이 철이 빨리 들었다고 느꼈고, 지금은 잔걱정이 많은 한 20대로 스스로를 정의하고는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이 제게 비치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저는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더욱 욕심을 키워왔습니다. 매사에 열정을 가지기 시작했고, 더욱 많이,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자신이 맡은 일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지나 오며 제가 얻은 것들입니다. 웹디자인과 퍼블리싱 분야를 접한 것 역시 저에게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니다.

[성격의 장단점]

위 항목에서 제게 잔걱정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곧 제가 가진 꼼꼼함과, 집요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어진 것을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학창시절 조별과제를 할 때에도, 시험 기간의 스케줄을 분배할 때에도 어김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실한 과정의 끝에서 부실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하면서 맡은 일을 제대로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한 산출된 결과물에서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물론 이러한 꼼꼼함이 오히려 집요하다고 일컬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부단 그것에만 몰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 스스로를 능숙하게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어린 시절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를 여러 번 만들어 꾸며 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커다란 모니터 속에 그대로 담아 두면 다른 사람들 역시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전의 저는 "예쁘고 보기 좋은" 화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면을 접해 볼수록, 더불어 "사용하기 편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고,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한 웹사이트를 직접 창조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곧 제게 이 직

종의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저 자신이 그려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롭고 즐거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다면 그보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디자인과 코딩, 모두 꾸준히 발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분야임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및 오늘의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늘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배워 나가는 성실한 발전형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동료들과 협업하며 실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직무인 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업무에 유연성을 갖추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욕심이 큼니다.